



삼다수 판매 '원희룡 인척' 연루 의혹

14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성명 통해 주장 "온라인 판매 재위탁사인 인척 A씨 관여"

제주 삼다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삼다수 온라인 판매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척 연루 의혹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자치연대에 따르면 삼다수 도의 위탁사업자는 2013년부터 광동제약이 맡고 있으며,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다. 계약 물량은 2013년 30만t에서 올해는 70만t에 이른다.

문제는 주민자치연대가 삼다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원 장관의 인척 연루 의혹을 제기한다는 점이

다. 광동제약이 삼다수 온라인 판매를 직접 판매나 자회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이 제3의 업체에 원 장관의 인척 A씨가 관여돼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연대는 "해당 업체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원 장관의 인척 A씨가 명시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삼다수 유통구조를 잘 아는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A씨가 삼다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충분히 확인됐다. A씨가 관여한 기간은 원 장관이 도지사로 재임하던 2014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연대는 지난 한

해에만 삼다수 온라인 판매로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삼다수 온라인 판매량 31만t(추정치)을 20%로 환산하면 1억7880만명이 되는데, 병당 50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총 54억25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원 장관은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인사권과 지도·감독 권한이 사실상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을 향해서는 "광동제약에게 삼다수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알짜사업"이라며 "왜 핵심 알짜사업인 삼다수를 제3의 업체에 온라인 판매를 맡겼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장맛비 내리는 출근길 장맛비가 쏟아진 14일 오전 우산을 쓴 행인들이 제주 오라동 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륜차 무질서 단속에 싸이카 나선다

올해 5명 사망... 각종 사고·민원 끊이지 않아 제주경찰청 합동단속팀 구성해 집중단속 돌입 도주 방지 위해 경찰 오토바이·순찰차 등 배치

제주경찰청이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고는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으면서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와 함께 합동단속팀을 구성,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402건(사망 11명), 2020년 327건(사망 12명), 2021년 448건(사망 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182건이 발생, 5명이 사망했다.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도 2019년 109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2219건, 지난해 595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단속 유형을 보면 보도통행이 2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160건, 교차로 통행 위반 446건 등의 순이다. 아울러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의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합동단속팀은 ▷

신호·지시위반 ▷안전도 미착용 ▷보도통행 ▷중양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들여다본다.

특히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미꾸라지처럼 단속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경찰은 싸이카(경찰 오토바이)와 안협순찰차, 캠퍼드 등 기계식 장비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불법튜닝 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이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코로나 확진자 하루 1000명 육박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검출 일주일 새 세배 증가

기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도내 검출률이 일주일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BA.5의 검출률은 6월 5주 8.7%에서 7월 1주 26.7%로 3배 증가했다.

BA.5의 역학적 특성은 BA.2보다도 35%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오미크론보다도 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중증화율은 일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BA.5 유행 등의 영향으로 도내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6월 4주 726명 → 6월 5주 1133명 → 7월 1주 2505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다.

최근 한 주 들어선 지난 10일 359명, 11일 541명이 발생한 데 이어 12일 964명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했다.

지난 13일 하루 동안에는 854명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날 오후 5시까지는 7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561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3668명이며 이중 3629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이동량과 활동량 증가 ▷국제선 취항에 따른 해외 유입 확대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높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접종 후 시간 경과로 면역력 지속 감소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실내 체류시간 증가 및 환기 부족 등이 최근 확진자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한림항 화재 어선서 마지막 실종자 추정 시신

지난 7일 발생한 한림항 어선 화재의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쯤 근해채낚기어선 A(29t)호에 대한 인양을 완료한 뒤 내부 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

했다.

해경은 이 시신이 화재 당시 실종된 A호 선원 2명 중 1명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A호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추정 시신 1구가 발견됐으며, 현재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은범기자

차귀도 인근 해상 어선 좌초

14일 오전 5시2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A(99t)호가 좌초됐다.

제주해경은 경비함정 7척과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6척을 급파해 A호에 탑승한 내국인 선원 4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총 8명을 구조해 경비함정으로 이송했다. 김도영기자

“전기 먹는 하마” 드림타워·신화월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에너지 저감’ 질의

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정당·환경·여성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제주신화월드와 드림타워의 사업자인 램정제주개발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지난 달 20일 '에너지 저감 계획 및 실천 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

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제주행동에 따르면 두 사업자는 제주도 전체 약 13만동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10%를 소비하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질의서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필요성 공감 여부 ▷에

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제주행동은 "먼저 신화월드는 대규모 곳자왈 지대를 파괴하며 지어진 대표적 환경 파괴 관광시설"이라며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곳자왈을 대규모로 파괴해 지어진 관광시설이라면 마땅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은범기자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4~5년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인공적 형성과 뿌리신성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이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신성이 적고 전뿌리 형성이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라향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라향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갈(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야카리 3년생
- 오히라베니와세(궁천변이)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모임

아름다운 동행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는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며 후원사업과 문화사업, 홍보사업 등의 연계사업 등으로 기부문화의 중심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동행 할 것입니다.

대상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은 만20세 이하의 환우

신청방법
 사무국 내방 상담 후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병원비 혹은 약제비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문의 및 신청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TEL(064)752-3300
 e-mail:jejubh16@daum.net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촌동길 89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